

##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코하우징 요구의 차이

한 주 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최 정 신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곽 유 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 전공 박사과정)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2002)에 의하면 여성 취업자의 상당수가 가사 및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대부분 본인이 가사를 담당함으로써 직업과 가사의 이중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높은 외국에서는 취업주부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줄이고, 이웃간에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상호지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코하우징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코하우징의 제안과 함께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의 생활과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코하우징의 요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자녀양육과 가사업무수행의 어려움을 비교하기 위하여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학생 이하이며,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부로 제한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 가족의 생활(가족 및 주택의 특성, 가사분담현황, 자녀의 양육방식), 코하우징 주거환경요구(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요구,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 공유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 이웃관계를 위한 영역형성 및 유지 요구, 거주자 참여에 의한 주거계획 및 관리 요구), 코하우징의 필요 및 거주의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2004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3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28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취업주부 149명, 비취업주부 129명, 총 278명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  $\chi^2$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의 생활을 묻는 질문에서 가족 및 주택의 특성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사일 분담상황, 자녀의 양육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 2) 코하우징 주거환경 요구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녀양육 영역에 대한 요구, 가사분담영역에 대한 요구, 공동의 공유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 이웃관계를 위한 영역형성 및 유지를 묻는 문항에서 취업유무에 따라 요구의 차이가 나타났다.
- 3) 코하우징의 필요 및 거주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는 비취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경우에 필요성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코하우징 거주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낮은 요구도를 보이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코하우징의 개발은 필요하리라 생각되나, 실제로 거주의사는 실질적인 확대 이후에 충분한 경험을 통하여 변화되리라 예상된다.